

여수시,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에 ‘화재안전키트’ 지원 사업

158가구 ‘스프레이식 소화기 등 7종’ 배부

참여 가정 비치후 SNS 활동사진 등 제출

여수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11월 한 달간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 158가구를 대상으로 가족재난안전예방사업인 화재안전 키트 배부 사업을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당초 ‘졸업여행 직업체험’ 현장 참여 프로그램으로 계획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집합 체험을 취소하고

‘가족재난안전예방사업’으로 변경해 화재안전 키트를 각 가정에 전달했다. 시는 일명 인천 라면형제 사고와 관련해 지난 10월 한 달간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를 집중모니터링한 결과, 화재예방 및 피난용품 미비지로 화재에 취약한 가정이 발견됨에 따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해 추진했다. ‘키트’는 주택용과 아파트용으로 나눠, 주택용에는 연기감지기, 스프레이식 소화기, 소방담요, 습수건, 응급처치키트, 키트가방으로, 아파트용에는 다용도 비상랜턴이 추가되어 총 7종으로 구성된 세트를 배부했다. 참여 가정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한 후 SNS로 활동사진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화재안전 예방용품을 구비할 수 없어서 안타

까웠는데, 키트를 받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화재에 대한 예방과 초기진화, 피난 시 대처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키트 배부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통합사례관리 가구 구성원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취약가정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양시 옥곡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펼쳐

광양시 옥곡면은 취약계층을 찾아 ‘똑딱똑딱 티끌모아 태산, 옥실골 Dream House’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쳤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4개월간 10개 민·관 단체 후원과 공모사업을 통해 마련한 1천6백만 원 상당의 재원으로 실시됐다. 대상자는 옥곡면에 거주하는 고령의 노인부부 가구로 평소 고혈압성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

을 앓고 있어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고, 불편한 몸으로 재래식 아궁이에 불을 지피 식사와 난방 등을 해결하고 있었다. 이에 쾌적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위해 지붕 처마와 주방 입식 부엌 설치, 창호 시공, 보일러 신설, 단열 및 도배장판 등 주거환경을 정비했다. 사업에는 △옥곡면 맞춤형복지팀 △옥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상주) △광양시

주민복지과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이사장 김재경) △(재)다솜동지복지재단(이사장 허상만) △(재)초록건설(대표 손병완) △(재)한국항만재단(대표 임현대) △옥곡중학교 8회 동창회(회장 허준구) △옥곡면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 지역회(위원장 박상주) △옥곡산악회(회장 정대성) 총 10개 민·관 단체가 참여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무안군, 암환자 92명 반려식물 전달

공기정화·마음치유 가능한 반려식물 3종·홍보물 나눠

무안군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자택에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재가암환자 92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재가암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가암환자에게 공기 정화부터 마음 치유까지 가능한 금전수 등 반려식물 3종과 홍보물을 나눠줌으로써 환자들이 암과 코로나 불투(코로나로 인한 우울증)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

고자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암환자들이 반려식물을 보며 위로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어 암을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신분을 지참하여 보건소를 방문하



면 각종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후 변경·철회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무안=이기성 기자

장흥 장동면 지사협, 건강한 겨울나기 안부살피기



장흥군 장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월 25일부터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독거노인, 저

소득 취약계층, 장애인가정 안부살피기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의 체력유지를 위한 균형영양식과 낙상예방용 미끄럼 방지 양말을 준비하여 안부살피기와 불편사항 유무를 확인하고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안부살피기를 시작으로 올겨울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집수리 단열, 난방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영암군 금정면 지사체, 저소득가정 반찬·생필품 지원

금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영주, 고재남)는 추운 겨울철을 맞아 취약계층 10가구를 발굴해 지난달 26일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이번 생활필수품은 저소득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가정 등 10가정에 화장지, 샴푸 및 린스, 김자반, 낙지젓갈 등 10여만원 상당의 물

품을 전달하였으며, 12월에도 동일 대상자에게 전달할 예정으로 1인당 총 20여만원의 생필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주 공공위원장은 “추운 겨울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은 더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소외된 주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석구석 잘

살피며 다독이는 동네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금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가정 반찬 및 생필품 지원, 저소득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긴급지원 등을 펼치며 저소득가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